

복구 새청사 이르면 내년 5월 첫삽

옛 복구 선관위 부지에 지하1층 지상 6층 규모 2025년 12월 완공 목표

광주 복구청의 새청사가 빠르면 내년 5월께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1일 광주 복구에 따르면, 복구는 '청사 신관(1단계) 건립 계획'에 대한 광주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요청, 지난달 27일 조건부결 통보를 받았다.

건축물 에너지효율, BF(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 각종 인증 기준에 맞춰 지으라는 조건을 덧붙여 재원 투입을 승인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복구는 광주전남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 청사 부지 주변을 최대한 활용, 점진적으로 구청 사무 공간을 확충키로 잠정 결정했다.

이른바 '3단계 청사 확충 추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 350억 원을 들여 1단계 사업으로 '신관(가칭)'부터 지을 것으로 보인다.

신축 터는 지난해 말 이전 직후 건물이

통째로 비어있는 옛 복구선거관리위원회 부지다. 옛 구 선관위 건물은 현 구청 제2 별관과 복지누리동 사이에 위치, 접근성·연계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복구는 현존 건물을 허물고 지하 1층·지상 6층, 연면적 5500㎡ 규모의 신관을 짓는다.

신관에는 안전생활국·경제문화국·도시관리국 산하 15개 부서가 입주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구는 이달 초순 열리는 구의회 임시회에 신관 신축 계획을 공유 재산관리계획안에 넣어 심의를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신관 건립 관련 토지 매입·설계 비용은 오는 4월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계획대로 라면 1단계 사업의 핵심인 신관 건물은 내년 4월까지 1년간 설계안 공모, 기본·실시 설계를 거친다.

이르면 내년 5월 공사가 시작되며, 준공 목표는 오는 2025년 12월이다.

공사 기간 중 일부 부서는 동 통·폐합으로 빈 층중 2동 행정복지센터로 사무 공간을 옮긴다. 부족한 공간은 현 청사와 멀지 않은 민간 소유 건물을 임차해 마련한다.

건축물 안전성이 문제가 된 별관을 철거하는 작업까지 끝나면 1단계 사업은 끝이 난다.

복구 관계자는 "신관이 완공되면 그동안 지적돼왔던 사무공간 부족, 분산 배치된 청사에 따른 민원인 불편 등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1단계 사업인 신관 건립·별관 철거가 마무리되면 민원인 주차장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2단계 사업부터는 의회와의 협의, 동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광주 광산구는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자매·우호도시 10곳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 제공

광산구, 10개 자매·우호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

광주 광산구는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자매·우호도시 10곳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청장은 지난 27일 NH농협은행 광산구청지점을 방문해 자매·우호도시인 부산 동구, 경남 함양군, 대구 수성구, 경기도 이천시를 비롯해 광주전남북부권 상생발전 협의회에 속한 담양, 장성, 광주 북구, 나주, 영광, 함평 등 총 10곳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탁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광산구 자매도시와 인접 시·군을 응원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다"며 "이번 기부가 교류도시 간 상생 협력을 활성화하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와 함께 하세요.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서구, 창업 아이디어 성공으로 이끈다

경진대회·캠프 등 참가자 모집 사업 서류 간소화로 문턱 낮춰 최우수작엔 사업화 자금 지원

광주 서구는 아이디어 발굴부터 전문가 멘토링, 실천창업체험 등을 하나로 잇는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및 창업캠프'를 동시에 진행한다.

1일 서구에 따르면 오는 7일까지 맛과 멋, 흥(재미)을 주제로 서구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창업 아이디어 접수 예정이다. 사업계획서 등 접수 서류를 간소화해 광주시민이나 광주 생활권자 누구나 도전할 수 있도록 참여의 문턱을 낮췄다.

서구는 우수 아이디어 15개를 1차 선발해 이틀간 창업캠프를 진행한 후 경진대회를 개최해 최우수작을 가려 서구스타트

업 입주 및 사업화 자금 연계 등 창업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서창한옥문화마을에서 열리는 창업캠프는 김승환 인카운터 경영연구소장, 문동진 더브레드블루대표, 이혜림 ㈜프렌트립 선임읍 강사로 초청해 △로컬 창업자의 자세와 기업가정신 △비전공자의 ESG창업 성공 스토리 △의식창업 및 소비자본 창업 길라잡이 △타지역 로컬 창업 성공 사례 등에 대한 주제강연을 진행한다. 또한 창업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타당성 검증,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통해 사업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서구는 오는 11일 창업캠프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를 개최해 최우수 아이디어 8개를 선정한다. 심사기준은 창업자(팀)의 역량, 창업 아이디어의 지역성, 창업 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 등이며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4팀, 특별상 2팀에 총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 수상팀은 서구 스타트업센터 입주, 지역산업맞춤형 사업 참여 시가산점이 부여되고 호남권엔젤투자허브센터 등과 연계한 투자 혜택도 받는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아이디어 하나가 지역을 살린다"는 말처럼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업으로 이어지고 서구만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청년들이 서구에서 창업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명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인 기자

동구 계림1동 '아동·청소년 기 살리기 사업' 추진

광주 동구 계림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구내 초·중·고등학교 50명에게 운동화와 간식 쿠폰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계림1동 지사협 후원을 받아 '아동·청소년 기

(氣) 살리기 특화사업' 일환으로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 1인당 12만5000원 상당의 운동화·간식 쿠폰을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의 부모에게 전달했다.

김영순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부모들의 자녀 양육 부담이 더욱 커졌

다"면서 "아이들이 큰 꿈을 갖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선헌 계림1동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매달 연합모금액을 기부해주는 착한가게 사장님들과 후원자들과 감사하다"며 "돌봄 이웃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계림1동 복지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8개> *요곡드:법원경매정보 웹포 접속됩니다. [아파트] 2022타경 7585 1 북구 동배마을길29, 104동 12층 1203호 아파트 513,000,000 [동림동, 운암산코아로하늘채] 84.6815㎡

Table with 5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 [단위:원]. Includes rows for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기타], and [2022타경 66676].

3. 매각결정일자 : 2023. 3. 23. [목]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방정
5. 매각방법
6. 매각방법에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8. 주의사항
* 대한민국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는 법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법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법원이 보증하지 않습니다.